

지역 매아리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최고 품질 사과 · 배 생산 위해 '총력'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최고 품질의 사과와 배 생산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기술센터는 지난 8일 사과와 배 재배 농가 60명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기술 교육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송장훈 박사가 강사로 나서 사과와 배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검역병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을 보인다. 치료 방법이 없어 더욱 치명적인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급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올해도 170만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재배 전 면적(160ha)에 약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검역병 차단과 농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는 병해충 방제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현안사업 해결 특별교부세 확보 나서

권재군 부안군 기획감사실장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세종정부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 방문해 위도 석급 선양장 설치공사 2억 1천만원을 비롯해 5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사업은 위도 석급 선양장 설치공사 2억 1천만원, 부안 경포 노후교량 재가설 15억원, 변산마실길 범죄예방 CCTV 설치 2억원, 해수욕장 현대식 안전감시 시설 설치 10억원, 해양재난 예방 위도 헬기장 조성사업 20억원이다.

권재군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을 위해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 특별교부세 반영을 요구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스포츠 강군으로 우뚝

고창군, 2018 대한민국 스포노믹스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이 '2018 대한민국 스포노믹스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스포츠경제와 한국스포츠포츠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이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사회조사분석 전문가의 분석으로 기업 및 단체 12개 부문, 개인 2개 부문에서 후보대상자를 선별한 후 2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고창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시설로 지정된 고창군립체육관을 비롯해 고창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경기장, 생활야구경기장 등 우수한 체육시설 기반을 잘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엘리트 선수들의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로 2017년 볼슬레이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축구, 야구, 유도 등 34개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창단된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 실업팀은 지난 2017년 전국 실업유도대회 최강전 개인전 금메달을 포함하여 전국대회 개인전 금4, 동5개와 단체전에서 은, 동1개의 성적을 거두는 등 각종 대회에서 고창군 유도의 위상과 명성을



고창군이 '2018 대한민국 스포노믹스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고창 고인돌배 유도대회)

전국에 알려 스포츠 강군으로 자리매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스포노믹스'는 '스포츠(Sports)'와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한 신조어로 스포츠 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한편 2018 대한민국 스포노믹스 대상의 분야별 시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고창군을 비롯해 경기 고양시 등 전국에서 2개 시군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아울러 프로스포츠단체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스포츠단체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스포츠구단 분야는 kt wiz 프로야구단, 미디어 분야는 KBS N SPORTS, 스포츠 선수분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보준 선수가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동물복지 실현 위한 사업 추진 박차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 구축 · 전염병 근절 총력

정읍시가 올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이 동물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첫 걸음, 사람 복지 실현의 지름이다"며 이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무엇보다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이의 일환으로 4만2000두의 소와 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

비로 12억7600만원을 투입한다. 2억4000만원으로 7개 공동 방제단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 차량 1120대에 대한 무선인식 시스템도 구

축하고 공수의 8명을 위촉해 지역별 로 방역 전담 시스템도 갖춘다.

동물 복지의 최대 저해요인 악성 전염병 근절에도 총력을 쏟는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근절을 위해 가금 농가의 질병 관리와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며 기존 AI 매몰지 사후 관리에 2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쏟는다.

이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000만원을 들여 축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1억1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더불어 "동물 복지형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배척받는 축산이 아닌 함께하는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관이 우수하고 사육여건이 좋은 선진 농장 20농가를 선정해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와 함께 길 고양이 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 문화 조성 등 시민의 식 계도와 제고에도 심혈을 쏟는다.

/정읍=김대환기자

승마로 체력 키우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 고창군, 학생 승마체험 추진

고창군은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초·중·고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학생 승마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113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정도로 관심과 만족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군은 승마체험 1명당 10회를 지원하며, 학교장(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해 일반 승마체험은 32만원 중 일부 자부담을 제외

하고 지원하며, 생활승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는 자부담 없이 32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각 학교별로 희망학생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및 배치해 오는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생 승마체험은 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료(1명당 2만원)가 포함된 사업비로 지원된다.

이밖에 궁금한 내용은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진흥팀(063-560-891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부안군은 쌀 과잉생산 및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4월 20일까지 연장 접수하고 있다.

30억 3천만원을 투입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올해 883ha의 논 타작물 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7일 현재 367ha(41%)가 논 타작물 전환면적으로 신청됐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올해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은 완화된 지원 조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농지요건이 완화됐다. 당초 논 타작물 재배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도 쌀 변동작물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했으나, 지난해 쌀

변동작물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지원단가는 올해 신규사업 참여농가의 50%로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한도 연장됐다.

농업인의 편의 도모와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을 감안해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로 연장했다. 지원금액은 작물별 차등 지원하는 데, 햅쌀 사료작물은 400만원, 두류는 280만원, 일반작물은 340만원이며, 11월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이 완료된 후 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2008년부터 매립장 운영을 위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협약사항으로 아산면에 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4억6800만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농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사업 등 32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이달 중 공사를 추진해 농민

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립장 주변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립장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